



보도시점 2026. 2. 26.(목) 10:00(회의 시작 후) 배포 2026. 2. 24.(화) 14:30

5년간의 개발협력,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

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
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'26~'30) 발표

- (포용적 가치) ▲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강화 ▲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▲재난치안 역량 제고
- (호혜적 상생) ▲전략사업 연계의 기획형 체계 ▲글로벌사우스 지원 ▲공급망 등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
- (혁신적 개발) ▲협력국민간 수요비탕 협력사업 先제시 ▲AI·문화 ODA 추진전략 수립
- (통합적 체계) ▲사업과 무상시행기관 정비 ▲성과기반 관리체계 도입 ▲평가전문기관 운영
- (이행기반 공고화) ▲사업실명제 도입 ▲사업 변경·신설 기준 강화 ▲쇄과정 정보공개 확대

□ 정부는 2월 26일(목) 오전,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「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」(이하 '위원회')를 개최하였다.

<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6.2.26. (목) 10:00 / 정부서울청사
- 참석대상 : 국무총리(위원장), 관계부처장, 민간위원 등 총 30명
- 회의안건
 - 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2026~2030)(안)
 - ② '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확정액 기준)(안)
 - ③ '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및 '26년 평가 계획(안)
 - ④ '25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·신설 내역

□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「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2026~2030)」과 「'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확정액 기준)」 등 4개 안건을 논의하였다.

□ 특히, 오늘 논의된 「제4차 종합기본계획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 전략으로,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심의·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'26~'30)

<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>

- ◆ **(정책일관성)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** 위한 **통합적 체계 강화**
 - * ▲전략과 연계 사업 발굴 위한 기획형 체계 ▲AI·문화를 중점분야로 추가
- ◆ **(분절화 해소) 원조 분절화 해소** 위한 구체적 목표, 방안 제시
 - * ▲무상 시행기관을 절반 이상 정비 ▲신규·기존 사업에 대해 강력 구조조정
- ◆ **(혁신성) 시대변화 적기 대응** 위한 **혁신적 방식 도입**
 - * ▲협력국·민간 수요를 바탕으로 협력사업 先제시 ▲AI·문화 ODA 추진전략 수립
- ◆ **(상생협력)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** 추진 강화
 - * ▲글로벌사우스 성장과 위기 대응 지원 ▲공급망 연계 강화 등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 강화
- ◆ **(책임성) 신뢰와 지지 확보**를 위한 **책임성 강화**
 - * ▲사업실명제 도입 ▲사업 변경·신설 기준 강화 ▲사업 소과정 정보공개 확대
- ◆ **(성과관리) 성과중심 ODA**를 위한 **통합관리체계 강화**
 - * ▲산출 중심 통합성과관리체계 가동 ▲평가전문기관 운영 ▲통합정보포털 통한 소과정 관리

- 정부는 “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‘보편적 가치’와 ‘상생’을 실현하는 K-ODA”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해
 - ①포용적 가치 실현, ②호혜적 상생 확대 ③혁신적 개발 이행 ④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. 전략 목표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전략목표 1 포용적 가치 실현

- 기후, 보건, 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·여성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 보호와 교육접근성 강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.
 - * ‘보건분야 ODA 추진전략’ 수립('26.上)
- 2030년 이후의 포스트 SDGs를 대비,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HDP Nexus 연계* 기반 사업 추진을 통해 단기 구호를 넘어 장기적 회복자립까지 지원한다.
 - * 인도적지원-개발-평화 활동간 연계를 통해 취약성 완화 및 갈등·분쟁 등 예방

- 또한,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되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하고 협력국의 재난 및 치안 역량을 향상시켜 협력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한다.

전략목표 2 호혜적 상생 확대

- 대외전략 및 기본계획 - 분야별 전략 - 개별 사업으로 일관되게 이어지는 ‘기획형’ 체계를 통해 ODA의 전략성과 통합성을 강화한다.
 - 전통적 강점분야(보건, 농촌개발, 교육, 기후, 공공행정)뿐 아니라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인 AI·문화를 중점분야로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.
-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성장과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개발협력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상생형 파트너십 및 협력을 확대한다.
 - 또한, 중점협력국 수를 재조정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, 운영 과정에 있어서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.
- 협력국의 경제·사회 인프라와 인재양성 등 발전기반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자원 공급망 연계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도 강화하여 협력국과 우리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.

전략목표 3 혁신적 개발 이행

- 대외전략 및 중점 분야, 강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형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, 협력국에 先 제시하는 ‘제안형’ 방식(‘수요기반 공동기획형’)을 도입한다.
 - 이는 협력국 수요 및 여건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수요까지 고려하여 협력국과 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.
-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기 대응을 위해, 기존 강점분야에 AI·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AI·문화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별도 전략을 수립한다.

- * ▲ 협력국 환경에 맞는 AI지원을 위한 ‘AI 활용 ODA 추진전략’(‘26.上)
- ▲ 문화역량과 ODA를 접목한 ‘문화분야 ODA 추진전략’(‘26.上)

- 아울러,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재원 유입 수단을 다양화하고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며,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등 개발금융 기능도 강화한다.

전략목표 4 통합적 체계 구축

- 다수의 무상 시행기관을 역량있는 기관 중심으로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사업에 대해 성과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한다.
 - 또한,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업 연계와 대규모 사업 발굴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한다.
- ODA 전략의 성과관리 체계를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의 통합 성과관리로 전환하여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제시해 관리하고 평가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.
- 그리고 협력국 총괄기관과의 협의를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발굴 시 시행기관의 재외공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재외공관 중심 협업을 강화하며, 현지 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의 현장성도 강화한다.

이행기반 정당성 확보, 파트너십 강화, 전문성 제고

- 정당성 확보(신뢰)와 파트너십 강화(협력), 전문성 제고(역량) 등 이행기반도 공고화하여 우리 ODA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.
-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무성을 제고하고 사업 변경·신설 기준을 강화하여 자의적인 사업 추진을 차단한다. 또한 ODA 통합 홈페이지(ODA KOREA)를 통해 사업 수 과정의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도 강화한다.
-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자기구, 선진공여국 등과 정책대화를 정례화 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.
 - * ▲'정부-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'(26) ▲'다자협력 추진전략'(26) 수립
- 끝으로, 개발협력 인재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산·학·연 공동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역량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.

2. '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확정액기준)(안)

- 정부는 '26년 종합시행계획을 통해, 올해 ODA 사업규모를 전년대비 조정된 5조 4,372억원('25년 6조 5,010억원)으로 정하고, 총 37개 기관(지자체 6개 포함)에서 1,763개 사업('25년 1,928개)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, 지역별로는 아시아(30.4%), 아프리카(24%)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.
 - * 지역별 비중('26년): 아시아(30.4%), 아프리카(24%), 중남미(7.8%), 중동-CIS(7.5%) 順
 - 분야별로는 교통(28.2%), 인도적 지원(9.5%), 교육(8.1%), 보건(7.9%)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
- '26년 종합시행계획은 작년 국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함과 동시에, 오늘 의결된 「제4차 종합기본계획('26~'30)」의 첫 해로서의 의미도 있어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*도 포함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.
 - * '제안형 ODA(수요기반 공동기획형) 적용방안 마련 '27년 신규기존사업 성과중심 구조조정 실시 등

3. '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'26년 평가계획(안)

- 위원회는 '25년에 실시한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와 '26년에 실시할 평가 계획(안)을 의결하였다.
- '25년에는 ▲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 수립, ▲ 국별종합진단 ▲ 기관역량 진단 3건을 실시하였으며,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.
 - 특히,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*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ODA 사업을 긴밀하게 연결하고, 수원국에서 창출한 결과물을 종합하여 우리 ODA의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께 적극 알릴 예정이다.
 - * (개념) ODA 전략-성과-사업을 일관되게 연결하고, 통합된 성과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, 학습을 강화하는 결과 중심의 관리시스템

- 올해에는, 우리 ODA 사업과 원조체계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 과제를 선정하였다.
- ODA 시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을 엄격하게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역량진단을 전면 개편*하여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역량 있는 시행기관 선별에 활용할 예정이다.
 - * ▲ 중위 규모(10억) 이상 시행기관 → 소규모기관·지자체 포함 쏠 ODA 시행기관으로 대상 확대
 - ▲ 주관기관 제3기관 직접 생산 자료 활용 강화 ▲정량·정성지표 분리 후 정량지표 비중 상향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국가와 지역만 달리해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(“다지역 유사 사업 평가”), 유상과 무상분야를 연계한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(“유·무상 간 연계사업 평가”)할 계획이다.

4. '25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·신설 내역

- 마지막으로, 정부는 '25년도 종합시행계획(확정액) 의결 이후 △수원국 사정변경 △중요한 신규사업 수요 등으로 발생한 ODA 사업 변경·신설 내역을 보고하였다.
- 외교부·복지부·재경부 등 24개 기관 소관의 변경·신설 사업 총 261건이 승인되었으며 무상사업 256건과 유상사업 5건으로 이루어져 있다.
 - 그 중, 정부 방침에 따른 ODA 사업 구조조정 추진 결과를 반영한 사업 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며, 수원국 정세변화·추가요청 등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한 ‘사업기간 변경’ 유형이 157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.
- 지난 55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‘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·신설 지침’ 개정안에 따라, 승인내역은 향후 분기별로 점검하고 국개위에 상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변경·신설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.

붙임1.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특징

붙임2.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안)

붙임3. '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확정액기준)(안)

붙임4. '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및 '26년 평가계획(안)

붙임5. '25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·신설 내역. 끝.

담당 부서 <총괄, 안건1>	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유승표	044-200-2148
		담당자	사무관	박석일	044-200-2162
		담당자	사무관	이승훈	044-200-2159
<안건 2>	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유승표	044-200-2148
		담당자	사무관	곽현진	044-200-2161
<안건 3>	국무조정실 평가기획과	책임자	과 장	옥선경	044-200-2074
		담당자	사무관	정부엘	044-200-2076
<안건 4>	국무조정실 사업연계조정과	책임자	과 장	한레지나	044-200-2164
		담당자	사무관	권하형	044-200-2166
담당 부서 <공동, 무상 분야>	외교부 개발전략·민간협력과	책임자	과 장	강효승	02-2100-6971
		담당자	사무관	이희석	02-2100-6973
담당 부서 <공동, 유상 분야>	재정경제부 개발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박정현	044-215-8710
		담당자	사무관	한예린	044-215-8713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

분야	3차 기본계획('21~'25)	4차 기본계획('26~'30)
정책 일관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략과 대외정책간 유기적 연계 ○ 기획시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를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○ 전략과 연계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형 체계 ○ 기존 강점분야(보건, 농촌개발, 기후 등) 외에 AI, 문화 신규 추가 ○ 중점협력국 수 재조정 및 운영 유연화
분절화 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 ○ KOICA의 플랫폼 기능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·방안 제시 ○ 무상 시행기관 절반 이상 정비 ○ 신규·기존 사업 성과 중심 강력 구조조정 ○ 효과성 있는 사업은 KOICA 중심으로 통합
혁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 분야 인프라, 디지털 격차 완화 지원 등 ○ 스타트업·소셜벤처 기업의 혁신 기술 활용 모델 개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○ 협력국과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협력사업 先제시 ○ 협력국 환경에 맞는 'AI활용 ODA추진전략' 수립 ○ 문화역량과 ODA를 접목한 '문화 ODA 추진전략' 수립
상생 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도국 경제·사회 인프라 지원 ○ 민간건설사 및 민자사업 경험 보유 공공기관과 협업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○ 글로벌사우스 국가의 성장과 위기 대응 지원 ○ 공급망·해양·공공데이터 등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 강화 ○ 현지안전 확보 위한 재난치안 역량 지원 강화
책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ATI 정보공개 항목 확대, ODA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○ 사업 추진시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한 책무성 강화 ○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도입 ○ 사업 변경·신설 기준 강화 및 내역 공개 확대 ○ ODA 통합 홈페이지 통해 사업 소과정 정보공개
성과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평가와 위원회평기간 상호 연계 ○ 평가성 사정을 통해 평가 과제 적절성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성과중심 ODA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○ 산출량 중심의 통합성과관리체계 가동 ○ 평가전문기관 운영, 평가의 전문성 제고 ○ 통합정보포털 활용, 사업 소과정 관리

5년간의 개발협력

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

1 포용적 가치 실현

글로벌 위기대응 강화

- 기후, 보건, 식량 등 글로벌 위기 대응 지원

지속가능발전과 평화 기여

- 포스트 SDGs 대비 및 재난·치안 역량 지원

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

- 인도적 지원 지속 및 효과성 제고

2 호혜적 상생 확대

대외정책 정합성 제고

- 기획형 체계를 통한 대외전략연계 강화 및 일관성 확보

협력국 발전기반 강화

- 경제·사회 인프라 및 인재양성 지원

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 구축

- 공급망 연계 강화 및 해양협력 공공데이터 활용 강화

3 혁신적 개발 이행

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

- 협력국 여건과 민간수요를 고려해 협력사업 선제시

미래분야 협력 확대

- AI, 문화 협력 확대 및 청년일자리그물망 구조 활성화

민간참여 활성화

-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및 개발금융 기능 강화

4 통합적 체계 구축

원조 체계 정비

- 무상 시행기관 절반이상 정비 및 성과중심사업 구조조정

성과관리 내실화

- 산출 중심 성과관리체계 전환 및 평가전문기관 운영

사업 현장성 강화

- 사업 발굴 시 재외공관협의 의무화 및 현지 인력 활용 확대

계획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



신뢰 정당성 확보

-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도 도입
- 사업 변경·신설 기준 강화 및 내역 공개
- 사업 성과정 정보공개 확대



협력 파트너십 강화

- 정부-시민사회협력 강화 및 현지 CSO 지원
- 다자협력 및 다자사업 성과관리 강화
- 선진공여국 및 신흥공여국과의 파트너십 강화



역량 전문성 제고

- 개발협력인재의 안정적 성장·정착 견인
- 산·학·연 공동연구 기반 마련
- 정부기관 ODA 전문성 강화

대한민국 ODA 이렇게 바뀝니다!



- ✓ 전략과 연계된 사업 발굴을 위한 **기획형 체계**
- ✓ 기존 강점분야(보건, 농촌개발, 기후 등) 외에 **AI, 문화 추가**
- ✓ **중점협력국수 재조정 및 운영 유연화**

- ✓ 무상 시행기관 **절반 이상 정비**
- ✓ 성과 중심으로 사업 **강력 구조조정**
- ✓ 효과성 있는 사업은 **KOICA 중심 통합**



- ✓ 협력국과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**협력사업 先제시**
- ✓ 협력국 환경에 맞는 '**AI활용 ODA 추진전략**' 수립
- ✓ 문화역량과 ODA를 접목, '**문화분야 ODA 추진전략**' 수립

- ✓ **글로벌사우스 국가의 성장과 위기 대응 지원**
- ✓ 공급망·해양 등 **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 강화**
- ✓ 현지안전 확보 위한 **재난·치안 역량 지원 강화**



- ✓ **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도입**
- ✓ 사업 변경·신설 기준 강화 및 내역 공개 확대
- ✓ ODA 홈페이지 통해 **사업 전 과정 정보공개**

- ✓ 산출 중심의 **통합성과관리체계가동**
- ✓ **평가전문기관 운영, 평가의 전문성 제고**
- ✓ **통합정보포털 활용, 사업 전 과정 관리**



I

개요 및 경과

- 제4차 기본계획('26~'30)은 5개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서, 새로운 비전·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
- 한국은 OECD DAC 가입('10) 이후 중견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,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에 대한 개선 요구 높은 시점
 - * '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, '21년 국제개발협력본부 출범
 - ** ODA 규모(예산) : ('20년) 3.4조원 → ('25년) 6.5조원 / ODA 규모 세계 13위('24년)
-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우리 ODA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

< 제4차 종합기본계획 의견수렴 과정 >

△ 1차 대국민 공청회('25.11.18) → △ 당정협의('25.12.23) → △ 기업간담회('25.12.22, 23, 29) → △ KOICA('26.1.12), EDCF 간담회('26.1.14) → △ 관계부처 의견수렴('26.1.14) → △ 다자기구 간담회('26.1.19) → △ AI 기업 간담회('26.1.20) → △ 국제개발협력위 실무위원 간담회('26.1.23) → △ 국제개발협력위 본위원 간담회('26.1.27) → △ 2차 대국민 공청회('26.1.28) → △ 시민사회 간담회('26.2.5)

II

대내외 환경분석

- **(대외환경)** 주요공여국은 국익을 위한 대외원조 정책을 강화하고 자국 경제·외교·안보 이익과의 전략적 연계 추진
 - * ▲(美) 국익이 해외원조 재평가 기준 ▲(獨) 개발협력을 안보정책에 통합하여 추진
 - ▲(日) 개발협력은 일본 국익에도 기여 필요 ▲(英) 개발협력을 통해 불법이민 원인 해결
- 경기침체, 국방비 증액 등으로 ODA 예산이 감소 추세로 전환된 반면, 기후재난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심화 속 인도적 지원 수요는 지속
- **(대내환경)** 세계적 국익 중시 경향 下, 대외정책과의 연계 강화와 함께 상위 전략·계획이 사업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추진체계 구축 요구
 - ODA 규모는 확대되었으나, 대표성 있는 성공사례가 부족하고 성과관리도 미흡
 - ODA 사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무성·투명성 제고 요구도 높은 상황

- **(성과)** ODA 지속적인 확대로 규모 목표를 달성('20년 3.4조원 → '25년 6.5조원)하고 보건·교육·공공행정 등 중점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
 - 인도적 지원을 확대*하고 대형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·사회 발전기반 조성을 통해 개발도상국 복지·발전에 기여
 - * 인도적지원 예산 : ('21) 1,930억원 → ('23) 4,036억원 → ('24) 9,565억원
 - 우리 강점분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*하여 ODA 사업의 전략적 추진기반 마련
 - * ▲그린뉴딜('21) ▲과학기술·ICT('22) ▲농업('23) ▲교육('23) 등 분야별 전략 수립
 - 기관역량진단제도 도입('21),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이행방안 수립('21), 다자협력 추진전략('22)을 통해 대내외 협력 강화
- **(한계)** 국제개발협력본부 출범('21) 이후 유·무상 종합전략, 사업간 연계 등을 추진해 왔으나,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부족 지속
 - 다수 무상 시행기관('25년 41개)에 따른 중복·비효율이 발생하고 우리의 비교우위와 발전경험을 활용한 대표성 있는 성공사례는 여전히 부족
 - ODA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고 책임성 확보 수단도 부족하여 ODA 지지도 및 신뢰 저하
 - 정책결정, 현지 협력 과정에서 시민사회 등 민간의 실질적 참여가 미흡하고 민간 역량과 전문성의 충분한 활용도 부족

<제3차 기본계획 평가를 통한 시사점 >

- ◆ 대외전략·정책과 사업간 정합성을 제고하고, ODA 기본책무를 다하면서도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'상생의 호혜적 ODA' 추진
- ◆ 역량있는 기관 중심으로 시행기관을 정비하고 소규모·일회성·저성과 사업 폐지 및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 재원 집중
- ◆ 발굴-심사-집행-평가에 이르는 쉼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강화
- ◆ 시민사회·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역점

IV

제4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

□ 비전 :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-OD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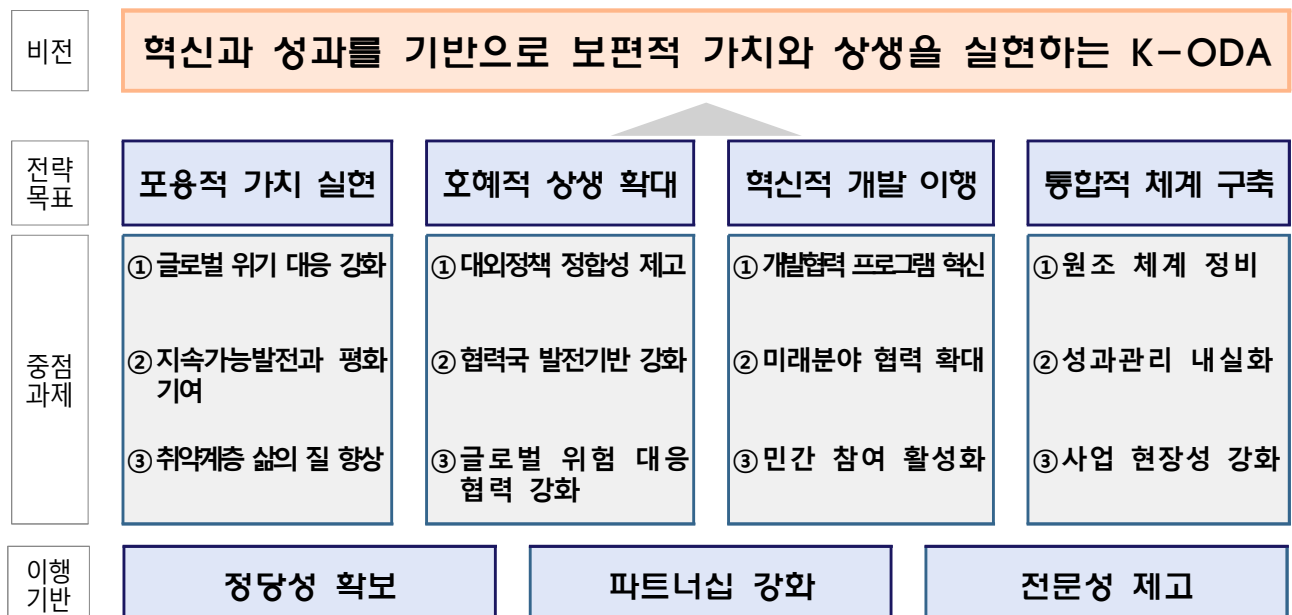
- * ▲ (혁신) 새로운 방식 적용을 통한 변화에 적기 대응, 자원의 효율적 활용
- ▲ (성과) 질적 내실화를 통한 신뢰와 지지 확보, 사업의 효과성 제고
- ▲ (보편적가치) 빈곤퇴치·글로벌 위기 대응 기여를 통한 ODA 본연의 목표 실현
- ▲ (상생) 협력국과 공여국간 동반성장을 통한 ODA 지속가능성 확보

□ 4대 전략목표

- (포용적 가치 실현) 기후·보건·식량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장기적 회복·자립까지 고려한 개발협력을 통해 ODA 본연의 가치 실현
- (호혜적 상생 확대) 경제·사회 인프라와 발전 기반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외정책과 일관되게 연계되고 글로벌 위험 대응도 강화하는 ODA 추진
- (혁신적 개발 이행) AI 기술의 ODA 적용, 문화 등 새로운 중점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활용과 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
- (통합적 체계 구축) 역량있는 시행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대형화 및 성과기반 관리체계 도입으로 대표 성공사례 창출

□ 이행기반 공고화

- 사업 수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민간·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내실화 및 ODA 생태계 지속가능성 제고



1 4대 전략목표별 추진과제

1. 포용적 가치 실현

- **(글로벌 위기대응 강화)** 기후변화 취약국 대상 기후재난 대응을 지원하고 보건 분야 ODA 추진전략*을 수립하여 보건위기에 체계적 대응
 - * ▲AI 기반 디지털 헬스 확산 ▲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▲기후대응 보건시스템 구축 등
- 식량 위기 지역 및 분쟁지역 국가 대상 식량 지원을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식품기술을 인도적 지원과 연계하여 식량위기 해소에 기여
- **(지속가능발전과 평화 기여)** 포스트 SDGs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HDP Nexus* 연계 기반 사업 추진으로 장기적 회복·자립까지 지원
 - * 인도적지원-개발-평화 간 연계를 통해 취약성 완화, 갈등분쟁 등 예방(OECD DAC 권고안 '19.2월)
- 발전된 우리 수사 시스템을 공유하여 치안역량을 향상시키고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 제고
- **(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)**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* 및 공관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효과성·가시성 제고
 - * ▲(보건) Global Fund(글로벌펀드) ▲(식량) WFP(세계식량계획) ▲(아동) UNICEF 등
- 아동·여성·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안전과 삶을 보호*하고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접근성 강화 지원
 - * ▲기초 위생 증진 및 건강 검진 ▲영양 강화 ▲폭력·학대·성폭력 예방 및 보호 등

2. 호혜적 상생 확대

- **(대외정책 정합성 제고)** 대외전략·기본계획 - 분야별 전략 - 사업으로 일관되게 이어지는 '기획형' 체계를 통해 통합적 추진 강화
 - 우리의 전통적 강점분야(보건, 농촌개발, 교육, 기후, 공공행정)뿐 아니라 비교우위를 가진 AI·문화를 새로운 중점분야로 추가
 - * 우리 기업과 협력국의 경제적 상호 호혜성을 고려한 '상호신뢰 기반의 개발협력방안 마련'(26.下)
- 다소 많은(27개) 중점협력국 수를 재조정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,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중간평가 및 중점협력국 대외 비공개

- **(협력국 발전기반 강화)** AI·디지털, 기후, 공급망, 교통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참여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대형·고부가 사업 발굴
 - 사전교육-국내교육-사후관리 등 소주기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지학생 장학지원 도입, 학습역량 평가 강화* 등 인재양성 효과성 제고
 - * 국내 대학기관에서 교육중인 해외 장학생에 대해 정기적 역량 평가, 연수 지속 여부 판단
- **(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 강화)** 공급망 강화 프로젝트에 ODA, 개발금융 및 정책금융간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
 - 도서국 협력을 통해 해상범죄 대응역량과 통항 선박 안전을 제고하고, 위성이 수집한 현지 정보 활용을 강화하여 ODA 사업 효과성 제고

3. 혁신적 개발 이행

- **(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)** 대외전략 및 중점 분야, 강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형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, 협력국에 先 제시
 - 협력국 수요와 여건, 민간부문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선제적 발굴
 - * 재외공관 등 통한 협력국과의 협의체 및 사업화와 애로지원 등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축
 - 우리 강점분야에 AI·ICT 기술을 접목, 시너지 창출 및 효과성 제고
- **(미래분야 협력 확대)** AI를 활용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협력국 환경에 맞는 AI 인프라 구축 및 AI 기반의 ODA 사업 효율화
 - 협력국의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예술 진흥·확산을 지원하고 우리 문화창조산업 경험과 노하우 공유
 - * ▲'AI 활용 ODA 추진전략' 수립('26.上) ▲'문화분야 ODA 추진전략' 수립('26.上)
- **(민간 참여 활성화)** 민간재원을 유입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EDCF - EDPF - 수출금융간 연계 패키지를 통해 민간재원 참여 촉진
 -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선진국 개발금융기관(DFI) 및 글로벌 DFI 협의체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개발금융 기능 강화

4. 통합적 체계 구축

- **(원조 체계 정비)** 기관역량진단을 확대하고 사업심사를 강화하여 다수의 무상 시행기관(25년 41개)을 역량있는 기관 중심으로 절반이상 정비
 - * '27년 신규·기존사업 강력한 구조조정, 다지역 유사(26년)·다자성 양자(27년) 평가, 정비
- 주요 전략·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ODA 효과성을 제고하고 분절화를 해소
- ODA 사업 홍보시 태극기 사용을 원칙화하여 한국 ODA 인지도 제고
- **(성과관리 내실화)** 성과 관리방식을 변경(투입(input) → 산출(output))하고 산출물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구체적 성과를 제시
 - * (기존) ODA 재원 규모 확대, ODA 개선방안 마련 등 투입량 및 정성적 실적 제시 (개편) 교육서비스 수혜자 수 1만명 등 통합성과지표를 통해 정량적 산출 성과 제시
- 평가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ODA 평가의 전문성·객관성을 제고하고 협력국의 민간전문가를 공동평가자로 활용, 현장 중심 평가 강화
- **(사업 현장성 강화)** 사업 발굴 시 시행기관의 재외공관 협의 의무화 및 재외공관의 ODA 사업 현황 파악·보고
 - 현지 주요 대학·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우리 ODA 사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현지 시민사회 협력 강화로 사업의 수용성 확보

2 이행기반 공고화

- **(정당성 확보)** 사업실명제, 기록이력제* 도입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 담당자의 책무성 제고
 - * ▲(사업실명제) 사업 전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, 기안자결재자 및 지시자 명시
 - ▲(기록이력제) 사업 이력을 코드화하여 추적관리 가능, 외부 개입 시 요청자, 요청사항 등 문서화
- 사업 변경·신설 기준 강화*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으로 자의적·임의적인 ODA 사업추진 차단
 - * ▲국개위 확정액 의결 후 사업 신설 원칙적 금지 ▲국화·국개위 보고 확대(연 1회 → 분기별)
- ODA 통합 홈페이지(ODA KOREA)를 통해 사업 쏠 과정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ODA 사업을 코드화하여 체계적 관리 및 통계 수시 제공

- **(파트너십 강화)** 「제2기 정부-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 방안(‘27-’30)」을 수립(‘26)하고 시민사회협력 예산 확대 노력 지속
 - 학계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기업, 국제기구, 청년 등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ODA 정책 수립
 - 다자기구와 소통을 정례화하고, 「다자협력 추진전략(‘27-’30)」을 수립(‘26)하여 다자협력 내실화 및 다자사업 성과관리 강화
- **(전문성 제고)** 단기 경력 인정 및 대형·장기 사업에 초·중급 전문가 인력투입을 확대하고 컨설팅 업체의 사업 추진 여건 개선
 - 학계·연구기관·경제계와의 협력을 통하여 산·학·연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기관 ODA 전문성을 강화

V 제4차 국제개발협력 자원배분 방향

- **(ODA 규모)** 국제사회 위상 및 기여 확대 요구, 한정된 재정상황 및 주요 공여국의 원조 축소 동향 등 종합 고려, ‘30년 ODA 규모 現 순위권* 유지
 - * ‘24년 기준 OECD DAC 32개국 중 13위
 - **(양·다자)** 국제동향 및 대외정책 등과 연계하여 탄력적 운영
 - **(유·무상)** 40:60(인정액) 유지 원칙, 일정 범위 내(35~45 : 65~55) 탄력적 운영
 - **(비구속성)** 유상 60%, 무상 95% 이상 확대
- **(지역국가별)** 아시아 중심 기조 강화, 중점협력국 재지정 및 양자 70% 이상 투입
- **(소득그룹별)** 현 수준의 지원 비중 유지하고 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
- **(분야별)** 기존 강점 분야는 상호호혜적 사업과 연계, AI·문화는 확대

VI 향후 계획(안)

- **(설명회)** 정부기관·민간기업·시민단체 등 대상,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(3월)
- **(시행계획)** 기본계획 구체적 이행 전략 및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수립
- **(중점협력국)** 제4기 중점협력국을 재지정(‘26.上)하고 그에 따라 국별 협력전략(CPS) 제·개정 추진

- ❖ '26년 종합시행계획(확정액 기준)은 정부가 편성·제출하고 국회가 의결('25.12월)한 사업을 반영
 - 한편, '26년은 「제4차 종합기본계획('26~'30)」의 첫 해로서, 기본계획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도 제시

1 '26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개요

- (총괄) '26년 ODA 총규모는 5조 4,372억원, 총 37개 기관, 1,763개 사업
 - ※ '25년 대비 1조 655억원, 4개 기관, 165개 사업 감소('25년 6조 5,010억원, 41개 기관, 1,928개)
 - ※ ODA 규모 = ODA 예산에 국제기구별 계상비율 적용(5.0조) + 한국은행 출자금(0.4조, 非예산)
- (유형) △양자·다자 비율 81:19(양자 4.4조원, 다자 1.02조원)
 - △유상·무상비율 43:57(유상 1.9조원, 무상 2.5조원)
- (지역) 아시아(30.4%) > 아프리카(24%) > 중남미(7.8%) > 중동·CIS(7.5%) 順
 - ※ '25년 대비 비중은 아프리카(18.5→24%) 증가, 아시아(33.4→30.4%), 중동·CIS(8.1→7.5%) 등 감소
- (분야) 교통(28.2%) > 인도적 지원(9.5%) > 교육(8.1%) > 보건(7.9%) 順,
 - 교통 분야가 전년 대비 큰 폭 증가(7,735억원→11,659억원, 14.0%p ↑)
 - ※ '25년 주요 분야 비중 : 인도적지원(16.6%) > 교통(14.2%) > 공공행정(7.7%) > 보건(7.3%) 順

2 '26년 국제개발협력 중점 추진방향

【 포용적 가치 실현 】

- 수자원 관리 및 보건분야 인프라(종합·전문병원 등)* 구축 지원과 함께 글로벌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 및 지원** 지속 추진
 - * ▲ 라오스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(2차)('26~'30, 909억원)
 - ▲ 우즈베키스탄 제약클러스터 구축사업(2차) ('25~'31, 1,546억원)
 - ** ▲ (기후) GCF('24~'27년 총 3억불), 손해와 피해 대응기금('25~'27년 총 7백만불) 등 공여
 - ▲ (보건) CEPI(감염병혁신연합), Gavi(세계백신면역연합), Global Fund(글로벌펀드) 등 지원
- 재난안전 정책·기술 지원을 통해 안전역량을 강화*하고, 여성·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 접근성 강화** 지원 지속
 - * 팔레스타인 재난·위기 대응 역량강화 사업('26-'30, 124억원)
 - ** ▲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빈민가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증진사업('24~'28, 79.7억원)
 - ▲ 우간다 오모로구 학교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초등교육의 질 향상사업('25-'29, 138억원)

【 호혜적 상생 확대 】

- '기획형 체계*'를 통해 사업을 기획·발굴하고 전략적 사업수행,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제4기 중점협력국 재지정('26.4월)
 - * 사업 발굴 지침에 중점분야, 대외전략 부합 여부 구체적 반영, 심사시 면밀 검토
- 베트남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, 카자흐스탄 희소금속 센터 구축 등 친환경, 경제안보(공급망) 분야 유망 인프라사업 적극 발굴
 - * ▲베트남 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('26~'30, 45.9억원)
▲카자흐스탄 알마티 희소금속 기술협력센터 조성('26~'30, 197.9억원)

【 혁신적 개발 이행 】

- '27년 사업부터 제안형 방식 사업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해 '제안형 ODA(수요기반 공동기획형)' 적용 방안을 마련
- 강점 분야(보건·공공행정 등)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사업*을 추진하고,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사업**을 지속 강화
 - * ▲(보건) 페루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방안('26-'27, 5.21억원)
▲(공공행정) 우즈베키스탄 시 기반 법률서비스 환경 구축 및 한우 법 센터 건립사업('26-'30, 200억원)
 - ** ▲(CTS)'25년 111억원 → '26년 118억원 ▲(IBS) '25년 247억원 → '26년 280억원

【 통합적 체계 구축 】

- 민간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, '27년 신규·기존사업에 대해 성과 중심의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('27년 시행계획(요구액기준)에 반영, '26.7월)
- KOICA·EDCF를 중심으로 ODA 패키지(안) 기획·발굴* 활성화
 - * 우리 강점·전략 등을 바탕으로 농촌·공급망·디지털·기후 등 유력 분야를 발굴하고, 분야별 표준 협업 모델 마련을 통한 다부처 협력체계 구조화

【 이행 기반 】

- 사업실명제·기록이력제 지침 마련, 강화된 사업 변경·신설 지침 적용, 사업 쏠과정 정보공개 등을 통한 책무성·투명성 강화
- 「정부-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('27~'30)」, 「다자협력 추진전략('27~'30)」 수립을 통한 민간, 다자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
- WFK 및 PAO 제도개선, 연구기능 강화, 교육·협업 강화 등 전문성 제고

붙임 4 '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및 '26년 평가계획(안)

1 '25년 평가 결과(안)

① 통합성과관리 체계 수립(안)

- (개요) 투입 중심 ODA 전략의 성과관리 체계를 산출(Output) 중심으로 전환
 - 개별사업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관리
 - ODA 사업으로 달성한 산출물을 종합한 구체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제시
- (주요 결과) 기존 ODA 전략의 한계와 선진공여국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,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 모델 구축
 - (성과 목표)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3개 전략목표 활용, 전략목표에 인과적으로 기여하는 13개 하위성과목표 설정
 - * 통합적 체계 구축(전략목표 4)은 별도 이행과제 점검 등을 통해 관리
 - (통합성과지표) 하위 성과목표에 기여하면서 ODA 활동이 수원국에 직접 일으킨 효과를 파악하는 산출 단위 통합성과지표 34개 마련



- (결과 활용) '27년 신규 ODA 사업부터 통합성과지표 1개 이상을 원칙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관련 실적을 집계·모니터링(연 1회)
 - 통합성과지표 적용이 가능한 기존사업에 대해 성과 집계 우선실시

② '25년 국별종합진단(베트남·방글라데시·우간다)

- (진단 목적) 수원국 단위(CPS) 통합성과관리 체계 적용방안 마련
- (진단 내용) 베트남·방글라데시·우간다의 CPS 체계 및 대표사업 기여 분석 및 선진공여국·국제기구 사례 연구 등을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
 - CPS가 수원국 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명확한 성과 경로(사업 → 성과 → 목표) 제시, 개별사업의 성과측정 통일을 위한 통합지표 활용 필요 등
- (주요 결과) 수원국 단위 통합성과관리 가이드라인 및 적용례 도출
 - CPS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
 - 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목표와 수원국의 중장기 개발계획 목표 간 교차점 식별을 위한 수원국 현황, 문제 등을 심층분석
 - ② 기본계획 및 한국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(안)에서 수원국 맥락에 맞는 영역, 주제, 분야 등을 도출
 - ③ 우리 기본계획 목표와 수원국의 중장기 개발계획 목표의 교차점을 CPS 지원목표·하위목표로 설정하여 전략 간 연계 확보
 - ④ 한국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에서 제시하는 통합성과지표 중 CPS 하위목표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사용 등
- (결과 활용) 상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향후 CPS 제·개정 추진

③ '25년 기관역량진단

- (개요) 시행기관(사업규모 10억 이상)의 성과관리·자체평가 역량 진단
 - '25년에는 성과관리 점수 비중 확대(50% → 60%) 및 사업성과 연동 지표 추가(국조실 집행관리, 외교부 재외공관 사업 모니터링 결과)
- (주요 결과) 평가대상 기관* ▲평균 달성도 80.1점(성과관리 81.4%, 자체평가 78.2%)
▲평균 A등급(S~D 5단계 척도)으로 준수한 결과 및 상향평준화 추세 확인
 - * (12개) 농식품부·산업부·행안부·과기정통부·기후부·성평등부·농진청·산림청·경찰청·식약처·지재처·데이터처
 - (성과관리) 전담 조직·인력, 단계별 지침 등 제도화 수준은 양호, 여전히 기관별·사업별 편차 및 실제 이행 부분에 한계* 존재
 - * 기획단계 F/S·성과지표 품질 편차 多, 일회적·단편적 협업연계로 고도화된 연계사업 미흡 등
 - (메타평가) 자체평가 수행체계는 우수(85.7%)하나 평가보고서 품질이 상대적으로 미흡(71.3%), 보고서별 편차*도 존재
 - * 기관별 편차보다는 기관 내 평가수행 주체, 참여인력 전문성에 따른 보고서간 품질 편차 존재
- (결과 활용) '25년 결과는 주관기관·당해기관에 통보하여 사업·예산 심사 시 고려하고, 각 기관들의 성과관리에 반영 조치
 - 2개년 기관역량진단(24~25) 분석 결과 바탕, 역량 있는 시행기관 선별 활용을 위한 '26년 기관역량진단 전면 개편 및 엄격하고 객관적 결과 도출

2 '26년 평가계획(안)

< 평가 주요 추진 방향 >

- ◆ 위원회평가를 통해 저성과·부실 사업 정비 및 역량 있는 시행기관의 역할 강화 적극 지원, ODA 효과성·책임성 제고
- ◆ 현장 중심의 위원회평가 수행을 통해 ODA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전문가도 적극 활용하여 객관성 제고

① '26년 기관역량진단

- (주요 방향) 새정부 국정과제 및 ODA 사업 효과성 제고 방향에 부합하도록 시행기관의 ODA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집중 진단
- (주요 내용) 주요 방향에 맞춰 '26년 기관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여 실시
 - (대상·주기) '26년 34개* ODA 사업 시행기관 진단으로 전체적 ODA 현황 파악, 기존 격년 진단이 아닌 단년도 일괄 진단
 - * 외교부·재경부·국조실 제외, KOICA-EDCF는 격년으로 자체진단 실시
 - (내용·방식) 실제 사업성과 및 정량지표 중심 진단으로 전환
 - 조직이나 제도가 아닌, 각 기관의 실제 사업 및 성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실질적 사업수행역량 진단
 - * 신규 진단 대상인 소규모기관·지자체는 별도의 추가 지표를 활용, 제도화 수준 확인
 - 주관기관 또는 제3기관이 직접 수합·생산한 1차 자료 활용 확대를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단 도모
 - 진단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량·정성지표 분리 후 정량지표 비중 확대(70%)
 - * ▲정량지표는 단계별 사업 중심으로, ▲정성지표는 기관 작성 성과보고서를 평가전문위원이 교차 검토
- (결과 활용) 기관별 평정 등급 부여 및 사업심사·환류에 활용
 - 정량점수, 정성점수, 기타 감점 합산 → 5단계 척도 등급* 부여
 - * S등급(90↑), A등급(80~90), B등급(70~80), C등급(60~70), D등급(60↓)
 - 사업단계별 진단 결과 분석 및 편차 제시*로 구체성·가시성 확보
 - * 기획집행평가 각 단계별 등급과 상대적 수준 명시, 구체적이고 다면적인 진단 결과 제공
 - 진단결과를 외교부 사업심사시 반영하는 등 활용도 제고로 ODA 시행기관 선별을 비롯한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

② 다지역 유사 사업 평가

- **(추진 배경)**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다지역 유사 사업모델에 대한 평가를 통해, ODA 사업 효과성·책무성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 뒷받침
- **(내용·방식)** 사업모델의 적절성, 효과성, 지속가능성 등 종합평가
 - ▲사업모델의 수원국별 현지화 ▲연속 사업을 통한 확장성 및 전파 가능성 ▲국가별 일관된 성과 창출 등을 중심으로 평가
 - 비교분석을 위한 선진공여국의 다지역 유사 사업 수행사례 연구 실시, 필요시 현지조사 병행을 통해 현장 중심의 평가 수행
- **(대상)** 최근 5년간('21~'25) 시행기관별 실시한 다지역 유사 사업의 현황을 기반으로 심층분석 사업 기준*을 별도로 마련해 선정
 - * (예시) 시행기관에서 공유한 1차 자료(사업 계획서, 중간보고서, 결과보고서 등)에 적절성·효과성·지속가능성 등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
- **(결과 활용)** 다지역 유사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한 사업모델 및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
 -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에 공유, 사업 심사·조정애 활용

③ 유·무상 간 연계사업 평가

- **(추진 배경)** ODA에 대한 통합성 및 효과성 강화 요구에 따라 유·무상 연계사업의 실질적 효과 분석과 개선방향 제시 필요
- **(중점 방향)**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전문위원 및 민간전문가 공동 참여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평가 추진
- **(대상)** 종료 사업 중 정책 여건,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
 - * (예시) ▲(라오스, 농업) EDCF 인프라 + 농진청 종자지원 + KOICA 역량강화
▲(방글라데시, 교육) EDCF ICT 교육훈련센터 + 교육부 교육정보화
- **(내용·방식)** 유·무상 간 연계사업의 추진현황, 사업 추진을 통한 상승효과(시너지), 비용·기간 효과성 등 심층 분석
 - 우리나라와 수원국 각 측면에서, 적절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, 연계-미연계 사업 또는 해외사례 비교 등을 통해 성과 분석
- **(결과 활용)** 유·무상간 연계사업의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

① '25년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

- (주요 개선사항) ODA 성과제고를 위해 자체평가 대상 선정기준 조정
 - * ▲ 프로젝트성 사업 종료/사후 평가 의무화, ▲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른 최소평가 건수 설정 기준 삭제, ▲대형 프로젝트성 사업은 중간평가 권고 등
- (평가 결과) 총 120건(34개 기관, 사업 수 기준 504개) 과제 중 119건 평가 완료, 1건 추진 중 → 총 86건의 이행과제 도출

◆ (유상) 총 6건 중 6건 평가 완료

◆ (무상) 총 114건 중 113건 평가 완료, 1건 추진 중

- 문체부,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'26년도 평가 예정

- (주요 성과) 국별, 분야별, 사업별 자체평가를 통해 시의성 있는 교훈 도출*, 종료 프로젝트사업 평가 의무화로 사업별 성과 제고 노력
 - * 국가별 전략적 협력방안 모색, 기후변화 관련 성과지표 확대 및 리우마커 연계강화 등
- (개선 필요사항) 사업종료 전이라도 외부 지적사업은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해소 등 성과관리 강화 필요

② '26년 시행기관 자체평가 추진계획(안)

- (주요 개선사항) 외부 지적사업 자체평가 의무화로 성과관리 공백 방지, 부실사업 사전 차단 및 평가를 통한 환류 강화
 - * 국회·감사원 지적사업은 종료 전이라도 평가 실시
- (평가 실시기관) 「'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확정액)('25.2월)」에 따라 ODA 사업을 시행하는 총 41개 기관 중 29개 기관
 - * 질병청, 인사처, 법무부 조달청, 감사원, 권익위, 국세청, 공정위, 4개 지자체 미실시
- (대상 과제) 총 135건 평가 추진 (사업 수 기준 269개)
 - (유상, 7건) 분야별 1건, 주제별 1건, 프로젝트·프로그램 5건
 - (무상, 128건) 분야별 2건, 형태별 1건, 주제별 1건, 프로젝트·프로그램 124건

1 개요

- '25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(확정액) 수립('25.2월) 이후, △수원국 사정변경 △중요한 신규사업 수요 등 일부 변경 발생
 - 규정*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승인한 변경·신설 내역을 국개위에 보고
 - * ▲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8항 ▲국개위 의결사업 변경·신설 지침

2 주요 변경 내용

- (총괄) 외교부·재경부·복지부 등 24개 기관에서 총 261건* 변경
 - * ▲외교부(KOICA) 163건 ▲복지부 16건 ▲재경부 12건 ▲농식품부 12건 등
- (무상) 사업 여건 변화(수원국 정세 급변, 사업 관련 계약 이견 등), 수원국 요청 등으로 △사업기간 변경* △사업 철회 △대상국 변경 등 총 256건
 - * 수원국 추가 요청, 시공 일정 지연 등 현지 사정으로 별도 예산 증액 없는 약 1~2년 사업기간 연장 유형이 157건으로 가장 많음
- (유상) △미정사업인 '프로그램 차관' 사업의 구체화* △수원국 긴급요청에 따른 사업 신설** △사업 철회 △집행소요 반영으로 대륙별 지출 변경 등 총 5건
 - * '글로벌 밸류체인 통합 강화 프로그램III'(IDB 협조용자 사업)
 - ** 모로코 교외선/메트로 철도차량 공급사업('25-'32, 2.35조원)

3 향후 계획

- 승인 완료된 변경·신설 내역은 '26년도 종합시행계획(확정액)에 반영
- 개정된 「국개위 의결 사업 변경·신설 지침」에 따라 사업 변경·신설 내역은 향후 분기별 점검 및 국개위 상정
 - * 26년도 1분기 변경·신설 내역은 차기 국개위에 상정·의결('26.4월 예정)